

경북지역 산업보건기관 터줏대감, 경북산업보건센터

편집실

메르스(MERS)로 전국이 들썩인다.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N95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경북산업보건센터를 방문하던 날, 메르스 청정지역이었던 경북지역에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했다. 다행인 것은 협회와 관련 있는 사업장에서 메르스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치료' 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경북지역 산업보건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경북산업보건센터를 방문했다.

경북지역 산업보건 개척자, 경북산업보건센터

경북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경산시에 다가서니 도로에 젊음이 가득 차 있다. 당연한 것이 경산에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해 대학교만 14개가 있다고 한다. '교육도시'이다. 그래서인지 경북센터에도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전문가가 다수 포진돼 있다.

경북센터는 1966년에 개소했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경북센터가 개소한 1960년대의 경북지역 산업보건은 미약했다. 미약했다는 말은 그만큼 '소홀'했다는 말이다. 또한 그만큼 시작도 힘들

경북센터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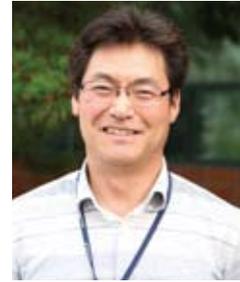
건강진단팀



임오현 보건관리팀장

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50여 년 동안 경북센터는 오로지 '근로자 건강'을 챙기며 지금까지 버텼다. 그래서 '산업보건 개척자'이면서 '터줏대감'이다. 감히 따라올 수 없는 50여 년의 잔뼈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과 이유'를 물었을 때, 임오현 보건관리팀장은 "1996년 입사해 담당했던 사업장이 (주)한중엔시스입니다. 근로자 수 30명의 소규모사업장이었고, 담당자도 대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로자 수 3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그 당시 담당자는 현재 부사장입니다."



이광재 건강진단팀장

보건관리팀



사진설명:
최주환 원장, 장용석 원장, 박원길 소장,
최정수 원장, 김주호 원장, 조성래 원장,
조광현 사무국장





조광현 사무국장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오랫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 건강관리’를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단번에 느껴지는 말이다.

경북지역은 서울의 31배 면적을 갖고 있다. 전국 최대 면적인 만큼 23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큼 경북센터 직원들은 많은 시간을 ‘찾아가는 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50인 이하 사업장이 88%를 차지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한다. 피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승철 환경위생팀장은 “힘들지는 않는데, ‘측정수수료’를 따져 가며 이리저리 옮기는 사업장을 보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는다. 올해부터 산업보건 사업을 경주지역으로 넓혀 갈 계획이다. 이광재 건강진단팀장은 “경주지역은 계속적으로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장이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관리의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전략적인 홍보 활동과 적극적인 신규 사업장 유치로 경북센터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경북센터는 ‘천사들의 집(지적장애인을 위한 사

환경위생팀



박승철 환경위생팀장

운영지원팀 :

이우직 대리, 박순필 차장, 조광현 사무국장, 박원길 소장, 강영철 팀장





회복지법인),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풋살동호회 '찰까말까'를 결성, 경산공단 내 업체와 친선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산업보건센터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전화 : (053)856-1211 ☎

미 니 인 터 뷰

• 협회와는 언제 인연을 맺으셨나요.

“2003년에 경북센터로 왔으니 12년 됐네요.”

• 12년 동안 협회에 몸담고 계신데, 그동안의 느낌은.

“협회에서 ‘한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 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건강부터 챙기고, 직원 가족들도 우선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정말 ‘한가족’이라고 느끼지요.”

• 협회의 발전방안이나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권역별로 협회 내 응급처치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을 ‘계약직’ 말고 ‘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속감을 가지고 앞장 서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연구나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원길 소장